일본 1945년부터 버블경제 이전까지의 경제 상황

킴 튀 히엔 22045408 일본어학과 7조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5년 8월, 일본은 ‘리틀보이’와 ‘팻맨’이라는 두발의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그렇게 2차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도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전 이후 절망적인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폭발적인 인플레이션과 식량을 비롯한 각종 자원의 부족이었다. 패전에서 반년이 지나는 사이에 화폐는 약 2배가 증가했고, 전쟁 중에 계약된 군수물자와 국채에 대한 대금이 시중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것이다. 한편 공습으로 인한 주요 생산시설의 해체와 원료 공급의 두절은 극단적인 생필품 부족을 일으켜, 화폐가치의 하락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겼다. 이로 인해 1945~49년 사이 소비자물가는 79배, 도매물가는 60배 상승하였고, 이를 막고자 실시한 화폐 개혁과 공정물가제는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지하 경제만 키우게 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 경제를 유지 및 활성화할 자원, 자재, 설비의 부족과 지나친 통화 팽창에 있었다. 즉 공급되는 물자가 너무나도 적은 반면, 통화는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공급된 통화량에 맞추어 생산능력을 확장하던가, 아니면 통화량을 생산력이 지탱하는 선으로 축소시켜야 했다. 그러나 화폐개혁 등의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통화량을 축소시킬 경우,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던 기업들이 대규모로 도산하며 대공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시도된 첫 번째 부흥정책이 경사생산방식(傾斜生産方式)이었다. 점령당국으로부터 월동용으로 긴급 도입된 중유를 철강 생산에 투입하고, 이로 인해 생산된 철강을 이번에는 탄광에 집중 투입하여 채탄량을 증가시킨 뒤, 다시 채탄된 석탄을 철강 생산에 투입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계획의 요점이었다. 에너지원인 석탄과 공업의 근간인 철강의 생산량을 교차적으로 증가시켜 고용과 공급을 확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했던 것이다. 이 계획은 1947년 하반기까지 채탄량을 3,000만톤까지 회복시키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이것만으로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금의 공급원으로 만들어진 정부출자의 부흥금고가 발행한 채권은, 결국 시중의 구입 능력이 약했던 때문에 일본은행이 인수하였고, 이로 인해 다시 강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게다가 부흥금고의 자금을 대출받아 간신히 경영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산업경쟁력의 악화도 심각하였다. 바로 이때, 즉 1949년에 일본을 자본주의 체제의 일원으로 부활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이 확정되면서 일본의 경제안정을 미국이 직접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선택한 수단의 핵심은 고도의 긴축예산이었다. 경제안정을 위해 무엇보다도 긴급한 것이 인플레이션의 종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획의 실행자인 조셉 돗지의 이름을 따서 ‘돗지 라인’이라 불리운 이 정책은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일으켰다. 일례로 1948년에는 697건에 불과하던 기업 정리가, 다음해인 1949년에는 무려 10,509건으로 급증하였고 정리해고는 22,829인에서 489,641인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도요타조차도 불황을 넘기기 위해 정리해고를 강행, 노사대립 끝에 해고 노동자와 함께 사장인 도요타 기이치로도 같이 사직하였다. 그러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각 분야의 기업들이 한계점에 도달했던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어난 ‘조선특수’는 단숨에 모든 상황을 변화시켰다. 당시 GNP의 3%에 해당하는 1,184억엔(1950.6~51.6)의 특수는 그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였지만, 자원 없이 공업 설비만을 갖춘 일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외화를 획득하게 하였다. 미국과 UN의 주문으로 군수물자와 보급물자등을 생산 판매하고, 후방기지로서 일본내 주둔하던 군인들의 소비도 상당했다. 이를통해 획득한 외화로 제품을 생산할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일본 경제는 부흥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주권을 되찾은 일본은, 1954년의 짧은 경기 조정을 거쳐 1955~73년까지 연평균15.1%(명목. 실질로는 9.8%)의 경제성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도성장의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약 20년에 걸친 이 성장은 일본을 ‘경제대국’의 위치로 끌어 올렸다. 고도성장기는 5번의 경기확장과 수축 국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경기의 이름에 붙은 진무(神武), 이와토(岩戶), 이자나기(いざなぎ)는 일본 신화의 인물이나 장소이다.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은 해당 인물이 태어난 이래 가장 경기가 좋다는 의미로, 다소 과장 섞인 표현에서 당시의분위기를 알 수 있다.

 불황 국면은 단기간에 종식된 것에 비해, 호황 국면은 최장의 이자 나기 경기의 경우 57개월 4년 9개월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 유지되었다. 이러한 장기 호황 속에 GDP는 급성장하였다. 이 사이에 일본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압도적인 위치를 유지·확대하였고, 농림수산업은 축소되었다. 또한 건설업과 제조업의 성장률은 농림수산업을 크게 능가하면서 산업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즉 고도성장의 견인차는 제조업과 같은 공업 분야이었고, 이중에서도 특히 중화학공업의 발전이 두드러졌는데, 이것은 전전의 중화학공업 성장이 이어진 것을 의미했다.

 이 같은 고도성장의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있는데, 같은 시기세계가 동반성장(서구 선진국들도 평균 6~8%)하면서 일본의 수출시장이 되었고, 에너지원인 석유가격이 저렴한 가운데 환율이 저평가(1달러=360엔)되어 있었다는 외부 요건도 컸으나, 국내적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성장한 기술력과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공되었다는 점과 빈약한 사회복지로 노후를 대비한 국민 저축이 대단히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교육의 정착으로 이미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일본은 전쟁으로 생활수준이 극도로 하락한 탓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 교육 확대라는 사회적 비용없이 후진국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철강업, 조선업과 같이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선 기반산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후 서구로부터의 기술 도입 속도가 빨랐고, 중간재의 국내 조달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산업 연관성이 높은 고도의 기계·전기공업 대량생산체제가 필요한 자동차, 가전산업 등 의 성장 역시 상대적으로 수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술하는 일본식 생산시스템이 성립되었다. 아직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일본기업은 향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가절감형의 대체기술을 찾아냈던 것이다. 한편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선택된 국민의 저축 중시는 투자 자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호송선단 방식 등 정책적 배려에 힘입어 금융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여기에 수출장려 정책, 기술지도 정책 등 관료집단의 선택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면서 고도성장이 지속되었다. 이 결과 1968년에 일본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미국의 뒤를 이어 2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대중소비 사회가 정착되어 이미 1970년에 흑백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3종의 ‘신기(神器)’는 보급률이 90%를 넘게 되었다, 자동차 보급율도 23%에 달하였다. 이로 인해 내수 시장은 견실하게 성장을 뒷받침하게 되었고, 일본 자본주의는 성숙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1973년에 일어난 오일 쇼크(oil shock)는 단기적으로는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1974년의 실질 경제성장은 1.3%로 떨어졌고, 75년에도 2.5%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러한 타격이 오히려 일본을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였다는 점은 아이러니라 하겠다. 오일쇼크의 영향은 일본에게만 온 것은 아니었다. 미국, 영국, 서독 등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도 급속히 하락하였고, 이에 비해 오히려 일본은 비교적 단기간에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여기에도 많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수출의 성장이었다. 1974~79년 사이에 일본의 수출은 54,480백만 불에서 101,232백만 불로 연평균 19.6% 증가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도 같은 기간 평균 22.4%씩 증가했지만, 에너지 절약과 생산 합리화를 통해 생산된 일본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은 강력하여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평균 51.7%, 2차 오일쇼크 파동이 있었던 79년을 제외하면 무려 80.1%의 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고평가된 달러 때문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던 미국이 1985년 주요 무역대상국들에게 달러 평가절하, 즉 자국 통화의 상대적 평가절상의 협조를 요청한 플라자합의가 열린 후 환율은 1985년의 달러 당 239엔에서169엔, 145엔의 순으로 매년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무역수지도 축소되었지만, 수출액 자체는 매년 상승하였고 무역수지가 적자가 된 것도 아니었다. 일본 경제의 능력은 다시금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게 되었고, 명실공히 ‘경제대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일본식 경영과 생산 시스템에 대한 찬사가 줄을 이으며 일본인들의 자부심이 최고조로 달한 것이 바로 이 1985~90년 대 초반에 걸친 시기였다. 플라자 합의를 기점으로 일본의 버블경제시대가 열렸다.

참고자료: : https://www.google.com/search?q=%EC%9D%BC%EB%B3%B8%EA%B2%BD%EC%A0%9C&sxsrf=APq-WBudeUk9NG4qjMBZkVflDdxZsX3JRw%3A1648460522521&ei=6oJBYuK2H\_Ha2roPrNO-kAs&ved=0ahUKEwji0\_v-wej2AhVxrVYBHaypD7IQ4dUDCA4&uact=5&oq=%EC%9D%BC%EB%B3%B8%EA%B2%BD%EC%A0%9C&gs\_lcp=Cgdnd3Mtd2l6EAMyBQgAEIAEMgUIABCABDIFCAAQgAQyBQgAEIAEMgUIABCABDIFCAAQgAQyBQgAEIAEMgUILhCABDIFCAAQgAQyBQgAEIAEOgcIABBHELADOgQIIxAnOhAIABCABBCHAhCxAxCDARAUOgsIABCABBCxAxCDAToICC4QgAQQsQM6CAgAEIAEELEDOgQIABADSgQIQRgASgQIRhgAUOcGWIQOYKUPaAJwAXgBgAG

버블경제 이후의 일본사회

장민욱

<버블경제 터지기 이전>

일본은 1970년대, 80년대에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서 한해 무역흑자만 1000억달러가 넘는 부유한 나라였다. 이때 일본은 많은 자본을 가지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일본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을 거듭하였다.

이때 미국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일본의 경제성장은 무척 빨랐다.

이 때문에 미국은 경제불황과 동시에 물가가 오르는 현상(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금리 정책을 하였고 일본은 무역 흑자를 위해 엔(화폐)의 저평가를 유지하였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수출품은 비싸지며 미국의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1985년 9월22일 미국은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G5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의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기로 결의한 조치인 플라자 합의를 한다.

즉 미국이 일본등 동맹국에게 달러를 저평가 하겠다고 합의를 받아낸 것이다.

플라자 협약으로 인하여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침체가 되자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하여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금리를 내렸다. 이때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규제 완화를 기회로 삼아서 부동산과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였다. 그로인해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였고 자산 시장 거품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리다 보니 일반 직장인들고 보너스를 두둑히 받았다. 이때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수있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돈이 많았으며 도쿄 긴자에 제일 비싼 땅값이 평당 10억원 가까이 되었을 정도 였다.

예를들어 일본 채용 면접때 교통비를 주는데 그때 1~2만엔(10~20만원)씩 주고 기업들은 흑자가 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기다 전세계 롤스로이스의 판매의 3분의1은 일본에서 나왔을 정도로 성장을 했었다.

<버블경제가 터진 이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은 자연스레 올른다. 당연히 80년대 폭발적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고 이는 자연스레 물가상승으로 이어졌고 일본 중앙은행도 계속해서 저금리 정책으로만 일관할 순 없었다. 이로인해 계속 잘나갈 줄 알았던 일본은 1989년 말 주가가 최고점을 찍고난 후 1990년 새해부터 일본의 기획재정부에서 출자총액제한한도 제도를 두었다. 여기서 출자총액제한한도 제도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때부터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10년간 일본의 주가 시수는 반토막이 났고 부동산 가격은 기존대비 평균 33%에서 심하면 10%까지 떨어했다.(67%~90%까지 잃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담보를 팔아도 대출금을 못갚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다량의 부실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해 은행이 도산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1995년에는 초고령화 사화가 시작되었고 당시 일본 정부에서 채권 회수를 잘못하는 바람에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었으며 1996년에는 자산 폭락으로 막대한 손일을 입은 기업들은 정직원을 잘 뽑지 않고 대두분 계약직으로 뽑게되는 상황까지 되어버렸다. 여기에 끝이 아니었다 1995년에서 1996년쯤에 경제가 조금은 회복이 되나 싶었지만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인 IMF까지 터지게 되어서 일본의 금융사들은 줄줄이 파산을 맞이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소비를 더더욱 줄임과 동시에 기업들은 수익성이 이전에 비해 나빠져 자금난에 빠진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금융권이 대출을 줄여버려서 시중에 있는 돈의 유동성까지 나빠졌다.

정부에서 나서서 많은 자본을 쏟아 부어서 해결을 할려고 하였지만 사람들의 소비와 투자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2000년대에 들어서 경제가 조금식 좋아질려는 조짐이 보였지만 2001년에 닷컴버블로 망해버렸다 여기서 닷컴버블이란 세계 여러국가에서 1995년에서 2001년 사이에 발생된 투기,투매 현상으로 인터넷의 폭팔적인 성장으로 벤처기업들이 각광받으며 주식사장 위주로 진행 되었지만 버블이 꺼지면서 함께 망해버렸다. 한국에서는 IT버블이라고 말을 한다. 게다가 이런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돈을 퍼부어 일본의 국가 부채는 2011년 3월 기준으로 973조엔(한화 1경원)까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성장률은 그때 이후로 거의 0~2% 수준으로 2016년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되어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되었다. 때문에 201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는 잃어버린 20년 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간혹 80년을 기준으로 30년이라고도 말을 한다.

<버블경제가 꺼진 후>

2016년에 들어서야 임금이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연율 기준으로 2.2%를 넘기는 등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단카이 세대(일본에선 1차 베이비붐 세대라 하는데 종전 이후 1947년부터 1949년에 태어난 사람들)가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청년층 일자리 취업이 많아지게 된다(대졸 취업률이 90%까지 육박함) 또한 2017년 일본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의 2배에 달하는 1.5%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확실시 되었다. 거기다 2018년 9월 28일 기준으로는 닛케이 지수가 24000을 돌파 하였다. 1991년 이후 27년만에 24000선을 회복하였다.(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여러 악재의 여파로 12월 24일 19000때 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9년 최악의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경제 성장률이 –4.8%까지 떨어졌다.(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건 전세계적인 현상임)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도쿄 올림픽이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 지나 했지만 2020년 12월 29일 닛케이 지수가 2만 7천을 돌파하며 1991년 이래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 2021년 2월 15일 3만을 돌파하며 추락했던 증시를 잃어버린 10년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2021년 10월 기시다 총리가 당선되고 내각은 36조(약 374조원)으로 역대 최대 추경안을 확정하였으며 그중 22조엔은 국체 발행을 통해서 충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천국과 지옥이 왔다갔다하며 현재 안정권을 찾아가고 있는것같다. 현 총리를 하고있는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일본문화>**

**주제 : 전후 일본의 정치와 경제**

**소주제 : 전후 GHQ에 의한 일본 통치**

 김세찬 21802134

**<순서>**

**1. GHQ란**
**2. 포츠담 선언**
**3. GHQ의 정책**

1. **GHQ란**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 연합국 군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
General Headquarters,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 혹은 GHQ.
GHQ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에 대하여 포츠담 선언을 집행하기 위해 일본에 설치된 연합군 기관으로, 1945년 10월 2일에 설치되었다.
통치방식으로는 간접통치가 채택되어 총사령부의 지령을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모습이 되었다. 명목상으로는 어디까지나 '점령지배'가 아닌 '포츠담 선언의 집행' 이 본래 역할이었으나, 1952년 4월 28일 일본과의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기까지 GHQ 점령하의 일본은 외교관계가 모두 단절되어, 일본과 외국간의 출입, 물자, 자본 등의 이동은 GHQ의 허가 하에서만 이루어져, 사실상 미합중국에 의한 일본점령기관이었다. GHQ의 최고 사령관은 미 육군의 더글러스 맥아더로, 재임기간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1년 4월 11일까지였고, 그의 후임으로는 매튜 릿지웨이이다.
2. **포츠담 선언**독일의 항복 후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에 걸쳐, 베를린의 포츠담에서 영국, 미국, 소련의 3개국 정상이 모여 제2차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대하여 토론했다.
1945년 7월 26에 영국, 미국, 중화민국의 이름으로 일본에 대하여 발효된 13개 조약으로 이루어진 선언으로, 영국의 처칠 총리와 중화민국의 장제스 국민정부 주석,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일본은 1945년 8월 14일에 이 선언을 수락하고, 9월 2일에 조인, 즉시발효되어 제2차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은 종결되었다. 포츠담 선언의 내용으로는, 일본의 완전무장해제, 전쟁범죄인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 존중, 전 일본군의 즉각 무조건 항복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3. **GHQ의 정책**
	1. 전쟁범죄인의 체포 : 전쟁지도자 검거를 비롯하여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포함한 수십명을 체포하고, A급 전범으로서 극동국제군사법정의 제판으로 도조 히데키 이하 7명을 사형, 그외 다수를 금고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2. 공직추방 : 전쟁이나 대정익찬회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정부기관 등 특정 직업을 갖는 것을 금지하여 군인이나 전시중 군에 협력적이었던 정치가, 사상가나 그의 혈연자도 취직이 금지되는 등 공직추방이 이루어졌다.
	3. 언론통제 : 군국주의적이거나, 전쟁 당시의 일본을 긍정하거나 연합군의 행위를 비판, 원자폭탄이나 무차별 공습의 피해 등의 내용을 담는 라디오나 신문, 잡지, 책 등을 엄격하게 단속, 통제하였다. 언론 및 신문의 자유에 관한 각서가 발표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하였다. 그러나 GHQ나 연합국에 대한 비판이 없거나 세계의 평화애호적인 것들이 장려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아사히 신문사는 이틀간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았다.
	4. 비무장화 : 일본 전국 군시설에 주둔하여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진행하였다. 물리적인 군사력 박탈 이후에는 법적인 정비로 천황 및 황실의 신성성 제거, 국가신도의 폐지, 군국주의 교육의 폐지 등이 이루어졌다.
	5. 민주화 : 일본을 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고, 노동조합법의 개정, 교육제도개혁, 권위주의적인 법제 철폐,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는 5대 개혁지령을 발표, 실행하였다. 치안유지법과 비밀경찰이 폐지되었고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4대 제벌인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재벌을 해체시켰다.
	6. 농지개혁 : 대지주로부터 강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소작인에게 분배하였다.
	7. 교육개혁 : 교육 기본법과 학교 교육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인하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이라는 교육과정이 신설되었다.
	8. 일본어의 로마자화 계획 : “일본어는 한자가 많기 때문에 학습하기 어렵고, 식자율이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화를 늦추고 있다”고 생각한 민간정보교육국(CIE)에 의해 일본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려는 계획이 세워졌으나, 철회되었다.
4. **GHQ의 폐지**
5.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어 일본의 주권이 회복됨에 따라 GHQ 및 SCAP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상호안전보장조약에 기반하여 주일미군이 결성되었다.
6.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제2차세계대전 및 태평양전쟁 이후 관련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평화조약으로, 1951년 9월 8일에 서명되어, 1952년 4월 28일에 공포되었다. 연합국은 일본의 주권을 승인하고, 국제법상 이 조약에 의하여 일본과의 전쟁이 종결되었다. 식민지에 대한 영토와 권리 포기 또는 신탁통치로 이관, 국제협정에 근거한 권리 포기, 국제협정의 수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https://ja.wikipedia.org/wiki/%E9%80%A3%E5%90%88%E5%9B%BD%E8%BB%8D%E6%9C%80%E9%AB%98%E5%8F%B8%E4%BB%A4%E5%AE%98%E7%B7%8F%E5%8F%B8%E4%BB%A4%E9%83%A8>

<https://ja.wikipedia.org/wiki/%E3%83%9D%E3%83%84%E3%83%80%E3%83%A0%E5%AE%A3%E8%A8%80>

<https://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5%9B%BD%E3%81%A8%E3%81%AE%E5%B9%B3%E5%92%8C%E6%9D%A1%E7%B4%84>

**일본문화**

**주제: 전후 일본의 정치와 경제**

**소주제: 일본의 외교 정책**

**22045411**

**응웬 득 하이**

**I 일미관계의 외교정책**

1951년 일본과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일미 안보조약"에 서명하여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 기지로 만들기도 했다. 따라서 그 이후로 미국은 항상 일본의 우호적인 동맹국이었고 외교 정책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미국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일본의 외교 정책도 매우 흥미롭다. 또한 1960년대부터 미국은 무역 회전율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본의 제1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점점 더 긍정적이고 긍정적입니다.

**II 일중관계의 외교정책**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과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정책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이 중국과 아직 수교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외교정책도 1970년대 후반 미국과 중국이 공식 수교 협정을 체결한 이후 변화했다. 그 이후로, 일본과 중국의 외교 관계에서 새로운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III 일러 관계의 외교 정책**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은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목표로 세계 각국, 특히 대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시도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주요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일본의 러시아 외교정책은 일본이 러시아를 존경하는 '예외'의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러시아는 일본에 유리하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은 변했지만 실제로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IV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세안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 변화도 많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해 1950년대 초반 국제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경제발전에만 몰두했다. 동시에 일본은 군사 동맹국이자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 외에 동남아 국가를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향후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과 아세안의 대외관계는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냉전 이후 아세안 지역의 정세도 심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세안이 역내 전 구성원으로 구성된 조직이 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조직은 세계 무대에서 그 위상을 점점 더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특히 일본 총리는 아세안 국가를 방문하는 동안 모든 면에서 이 기구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 IV 일본의 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유럽연합(EU) 외교정책이 더욱 번창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일본과 EU의 관계는 여전히 냉전의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진전되고 안보 분야를 포함하여 협력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냉전 종식 이후 안보 문제나 대테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외교정책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약속한다.

[https://nhatban.fandom.com/wiki/Chính\_sách\_đối\_ngoại\_của\_Nhật\_Bản\_với\_ba\_cường\_quốc\_Mỹ,\_Nga\_và\_Trung\_Hoa](https://nhatban.fandom.com/wiki/Ch%C3%ADnh_s%C3%A1ch_%C4%91%E1%BB%91i_ngo%E1%BA%A1i_c%E1%BB%A7a_Nh%E1%BA%ADt_B%E1%BA%A3n_v%E1%BB%9Bi_ba_c%C6%B0%E1%BB%9Dng_qu%E1%BB%91c_M%E1%BB%B9%2C_Nga_v%C3%A0_Trung_Hoa)

전후 일본의 정치제도

이현민

0. 개요 - 기본적인 정보

일당우위제 : 1개의 정당이 여당으로 집권하며 압도적인 비중으로 정치기구를 장악하여 일당제와 상당 부분 유사한 체제 혹은 그러한 상태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 : 헌법과 국회가 정화는 법률 등을 따름

삼권분립 : 입법 , 사법 , 행정의 삼권으로 나눔

의원 내각제 :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

 -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 둘 다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

 - 다만 법률이나 예산, 조약의 의결 등에서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강한 권한을 가짐

국민 주권의 원칙

천황 : 국가 원수 아님 (찬반 양론이 있음) ,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 ,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 없음(헌법 제 4조 1항)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외교와 원조, 무역을 행함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국가와 깊은 관계 유지

미국을 가장 중요시 여김

1. 일본 전후의 정치사(간략히)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태평양전쟁이 종결된 후의 전후사는 미국의 대일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짐.

군국주의 일본의 해체와 전범 처리가 진행되고, 1947년 5월에 주권재민(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헌법 제도), 전쟁의 포기, 기본권 존중을 중심으로 한 일본국 헌법 발표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및 비공산권 49개국과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군정의 종료와 동시에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1955년에 일본사회당의 좌 / 우파가 통일, 일본민주당과 자유당이 통합(보수 합동) , 55년 체제가 확립됨. 이 때부터 항상 자유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음

1993년에 자유민주당 분열, 미야자와 내각의 불신임 결의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되며 중의원이 해산. 자유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여 신당을 구성하여, 이후의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의 의석은 크게 감소. 1993년 7월 총선거 자유민주당 참패, 일당 독주체제 마감.

이후 1994년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 신당 사키가케의 연립내각이 구성됨.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1999년 1월,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의 연립내각을 출범.

2000년 자유당 분열, 탈당한 일부 의원은 보수당을 결성.

2003년 11월 총선거 이후 보수신당이 자민당에 흡수되면서, 자민당의 공명당의 연립정권이 됨. 이러한 연립정권은 현재에도 유지되는 중

2. 정치 체제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하기 전까지는, 정치 제체와 국체가 일체된 천황이 다르리는 '신권 국가'로 불린 입헌군주제 국가였음.

현재의 일본은

-천황은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이 없는 상징으로 규정

-군주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입헌' 군주는 존재하지 않음

-통치권 또한 국민에게만 존재, 호칭 또한 신민이 아님

일본인 입헌군주제인지 공화제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일반 대중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 등의 수반을 선출하지 않고, 세습 군주인 천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헌군주제라고 보는 입장이 존재

군주에 해당하는 천황이 국정에 대한 권능이 없기 때문에 공화제라고 보는 입장이 존재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 대중에 의해 선출된 자를 중심으로 구성

3. 국가 원수

헌법상 천황을 국가원수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상징적 국가원수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권한이 없다. 말 그대로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

오히려 명목상 신하로 여겨지는 내각총리대신이 국가 원수 호칭에 걸맞는 권한을 가진다. 사실상 일본의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면 된다. 자위대의 최고지휘감독권 또한 총리의 권한이다.

4. 정치

입법

-일본국 헌법은 국회를 국권의 최고 기관,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허나 일본의 행정기관인 내각부에도 법안 제출권을 부여하였고, 실제로 국회에서 가결되는 법안의 대부분은 내각이 제출한 법안이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 참의원의 임기는 6년.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선출한다.

-중의원 선거는 일반적으로 총선거라고 부르고, 참의원 선거는 통상선고라 부른다.

행정

-행정권은 내각 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내각에 속하며, 내각부는 행정권의 행사와 아울러 국회에 책임을 진다. 내각부는 행정 사무 이외에 법률 집행, 외교 관계의 처리, 조약 체결, 예산 작성, 정령 지정 등의 업무를 부담.

-내각총리대신은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하고, 일본 천황이 임명한다.

사법

-사법권은 최고재판소를 비롯해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하급 재판소에 속하며, 재판소는 위헌입법심사권을 갖는다.

-상급 재판소인 최고재판소는 수장인 최고재판소 장관과 그 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됨.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이 지명하여, 천황이 임명하고,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최고재판소 장관과 그 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명된 뒤 국민심사를 받고, 10년이 경과할 때 마다 재차 국민심사를 받는다.

출처 : <https://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3%81%AE%E6%94%BF%E6%B2%BB>